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김 영 희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할모델을 관찰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임상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Bantell, 2005; Nath, Schmidt, & Gunel, 2006). 이렇듯 임상실습 교육도 산학공조형 실습(Cho, Roh, & Boo, 2005), 주문식 선택실습(Kim, 2005), 학교와 병원의 협력실습(Kang, Cho, Roh, Boo, & Ahn, 2006), 문제중심 실습(Baek, Song, Kim, & Kim, 2007) 등의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임상환경을 반영하여 강의실에서 산출된 지식과 기술 및 개념 적용의 기회가 되는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Twibell, Ryan, & Hermiz, 2005). 이러한 실습 교육방법은 간호학생에게 교육환경으로서의 적합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지만(Kang et al., 2006), 임상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간호학생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서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Kendall & Bloomfield, 2005; Oh, 2002; O'Kell, 1988).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맡은바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의 효율화를 위한 요인 중의 한 가지이다(Kendall & Bloomfield, 2005; Nath et al., 2006;

Oh, 2002; O'Kell, 1988). 즉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주요 요인이 되어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념이므로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임상환경에서 실습교육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같이 겸비하여 간호학생으로서의 실습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Ko, 2003; Levett-Jones, 2005; O'Kell, 1988).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임상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은 바로 자기주도성이기 때문이다(Levett-Jones, 2005).

자기주도성은 임상 교육 환경에서 임상실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간호학생이 자신의 실습 요구를 명확히 하고 목적을 세워서 실습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인이 되며(Levett-Jones, 2005),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영향요인이어서 국내·외의 간호교육에도 자기주도성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였다(Ko, 2003; Levett-Jones, 2005; Oh, 2002; O'Kell, 1988; Slevin & Lavery, 1991). 따라서 자기주도성은 간호학생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전문직 태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화가 되며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특성을 함양시켜 주므로 간호학생의 전문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성 교육이 이루어져서(Levett-Jones, 2005; O'Kell, 1988; Slevin & Lavery, 1991), 스스로 간호문제를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해서 임상실습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Bae, Lee, Kim, & Sun, 2005; Moon, 2000; Slevin & Lavery, 1991).

주요어 :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만족도

1)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global@postown.net)

접수일: 2009년 5월 7일 1차 수정일: 2009년 7월 8일 2차 수정일: 2009년 7월 24일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1일

이 같은 임상실습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로 만족도가 있는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자기주도성이며(Oh, 2002) 이러한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주요 속성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내적 만족감이 중요하다(Park & Hyun, 1997). 또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긍정적인 역할 경험을 통해 성취한 만족감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어서 스스로의 자기효능감 강화와 자기평가를 통해서 자기주도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Levett-Jones, 2005; O'Kell, 1988; Slevin & Lavery, 1991).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은 간호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변화하는 임상환경에서도 적극적인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3년제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교육 기관은 전문 인력이 늘 상주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이 클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 스스로가 실습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인 실습의 원동력이 되는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함양해서 실습하면 이에 대한 실습 만족도도 향상되어서 궁극적으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위한 근거자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육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특별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자기지각을 말하며(Kendall & Bloomfield, 2005),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

이 개발한 자기효능 척도로서 Hong (1995)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이란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으로서 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합한 모든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는 즉, 실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원동력(Guglielmino, Guglielmino, & Long, 1987)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 등(1987)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검사(SDLRS;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기초로 Yoo (1997)가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란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Han, 2000), 본 연구에서는 Moon (1999)의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J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 중, 이 기간에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 전수(150명)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총 122명(81%)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은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시기로 임상실습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첫 임상실습이므로 학내 기본간호학 실습실에서 기본적인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간호수술을 충분히 습득 한 이후에 임상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도구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자기효능감의 개인적 수준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에 의거해 자기효능척도 (SES: self efficacy scale) 36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Hong (1995)이 번안하여 남녀 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중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 문항을 본 연구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7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 .92 였다.

●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도구는 Guglielmino 등(1987)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 도구로서 8개 항목의 58문항 5점 척도 였으나 중복되는 문항이 많아 이를 요인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Yoo (1997)가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거쳐 6개 항목의 32문항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6개 하위영역(실습에 대한 애착, 실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실습에 대한 호기심, 자아개념, 실습에 대한 책임수용)으로 구분되며, 총 32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 .91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는 Moon (1999)의 총 34문항의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임상실습 내용의 적합성을 위해 실습병원의 수간호사 2인과 임상실습 전임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항을 제외한 23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으로 구분되며, 총 23문항의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가 긍정적인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 .87이었다.

●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관련 특성의 변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관련 특성의 변인은 다음과 같았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지원동기, 향후 원하는 진로, 전공 만족도의 변인을, 임상실습 관련특성에서는 실습장소, 실습의 문제점, 실습의 강점 변인을 포함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인 중의 성별은 본 대학의 남자 재학생 숫자가 전체 재학생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지원동기와 향후 원

하는 진로는 실습을 구체화시키고 실습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었다 (Valle et al., 2003). 또한 전공만족도 변인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본인의 적성에 알맞은 역량수준을 새롭게 획득할 수 있고 학습 및 실습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Valle et al., 2003).

임상실습 관련 특성 변인중의 실습장소는, 본인의 지적인 발전을 고무시키는데는 임상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으며(Chenoweth, 1998), 실습의 문제점은 임상에서 발생된 간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간호대학 졸업생을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어서(Chenoweth, 1998)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문제점을 파악하여 질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실습의 강점은 긍정적인 실습목적에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에 임할 때 이론정립과 성취감에 대한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Valle et al., 2003).

자료 수집 방법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과 2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2주간의 임상실습 기간에 교수별로 교수 연구실에서 집담회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기에, 각 교수 연구실에서의 집담회 이후에 교수 연구실과는 다른 층에 위치한 간호과 세미나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이후에 연구자가 수거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2부(8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8.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실무의 연계(14.75%)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이 일개 대학의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으로 한정되어서 표본수가 작고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의 장소, 내용, 형식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관련 특성

간호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업률(37.70%), 권유(27.87%), 적성(24.59%)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하는 진로는 병원(75.41%), 진학(13.93%)이었고 전공만족도는 그렇다(62.29%), 아니다(37.71%)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장소는 외과계(32.79%), 내과계(22.13%)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의 문제점은 과도한 과제물(45.08%), 심신의 스트레스(16.39%), 질 높은 실습이 안되는 것(16.39%)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의 강점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51.64%), 직접적인 간호를 해주는 것(25.41%), 이론과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70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성의 전체 평균은 3.66점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성의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에 대한 애착>이 3.84점, 가장 낮은 영역은 <도전에 대한 개방성>으로 3.57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4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가 3.56점,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평가>로 3.3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제 특성별 및 임상실습 관련 특성별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성별이 남성인 군($t=-2.82,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기주도성은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지원동기($F=3.86, p=.011$), 임상실습 장소($F=3.73,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분산분석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 간 일 대 일로 비교했을 때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08	88.52
	Male	14	11.48
Motivation for nursing	Fitness	30	24.59
	High employment	46	37.70
	Recommendation	34	27.87
	Others (profession, evangelism)	12	9.84
Expected employment	Hospital	92	75.41
	University	17	13.93
	Others (health teacher, civil servant, business, professor)	13	10.66
Satisfied with major	Yes	76	62.29
	No	46	37.71
Clinical practice place	Medical	27	22.13
	Surgical	40	32.79
	Mixed Medico-surgical	18	14.75
	OB/GY and Pediatric	13	10.66
	Special (Oncology, ICU)	24	19.67
Problem in clinical practice	Too much required homework	55	45.08
	Sepa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10	8.20
	Distress of body and mind	20	16.39
	Insufficiency of high quality practice	20	16.39
	Others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it dissatisfaction)	17	13.94
Strengths of clinical practice	Connection of theory and practice	18	14.75
	Numerous experiences	63	51.64
	Direct nursing	31	25.41
	Others (seems like nursing, direct 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0	8.20

Table 2. Mean Score for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Self efficacy		3.70±.54
Self-directedness	Love of practice	3.84±.56
	Self-confidence as a learner	3.58±.52
	Open to challenge	3.57±.44
	Curiosity about practice	3.65±.66
	Self-understanding	3.67±.64
	Responsibility for one's own practice	3.67±.68
	Total	3.66±.4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content	3.53±.35
	Practice teaching	3.56±.44
	Practice environment	3.33±.71
	Practice time	3.34±.85
	Practice evaluation	3.32±.47
	Total	3.44±.35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Table 3).

Table 3.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3.66±.53	-2.82	3.65±.45	-1.35	3.45±.35	-.16
	Male	4.08±.49	(.005)	3.82±.42	(0.179)	3.46±.45	(.876)
Motivation for nursing	Fitness	3.86±.56		3.76±.43		3.56±.32	
	High employment	3.55±.59	2.50	3.61±.48	2.39	3.35±.38	3.86
	Recommendation	3.80±.48	(.062)	3.75±.40	(0.071)	3.53±.35	(.011)*
	Others (profession, evangelism)	3.68±.33		3.42±.38		3.29±.24	
Expected employment	Hospital	3.70±.54		3.66±.43	.12	3.46±.35	.63
	University	3.76±.60	(.926)	3.72±.45	(0.887)	3.37±.40	(.532)
	Others (health teacher, civil servant, business, professor)	3.70±.53		3.64±.55		3.51±.39	
Satisfied with major	Yes	3.72±.53	0.32	3.72±.45	1.77	3.47±.35	.47
	No	3.68±.56	(.746)	3.58±.43	(0.078)	3.42±.38	(.474)
Clinical practice place	Medical	3.61±.49		3.57±.42		3.37±.33	
	Surgical	3.84±.48	1.86	3.79±.46	1.45	3.61±.35	3.73
	Mixed Medico-surgical	3.73±.54	(.122)	3.67±.37	(0.223)	3.44±.28	(.006)*
	OB/GY and Pediatric	3.85±.62		3.68±.50		3.42±.42	
	Special (Oncology, ICU)	3.51±.61		3.57±.45		3.29±.33	
Strengths of clinical practice	Connection of theory and practice	3.72±.59		3.63±.44		3.37±.30	
	Numerous experiences	3.59±.53	2.77	3.60±.40	1.79	3.42±.34	1.08
	Direct nursing	3.84±.53	(.056)	3.77±.52	(0.153)	3.54±.38	(.362)
	Others (seems like nursing, direct mo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01±.41		3.86±.42		3.47±.47	

* means Scheffe's test

Table 4. Correlations for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tegories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 efficacy	1		
Self-directedness	.755(p< .00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79(p< .001)	.412(p< .001)	1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성($r = .755, p < .001$), 임상실습 만족도($r = .379, p < .001$)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만족도($r = .412, p < .001$)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시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간호문제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증진시켜서 보다 효과적이고 질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0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88.91점으로 중상 정도였다는 연구결과(Kim & Kim, 2007),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1점이었다는 연구결과(Yoo, Son, Yoo, & Hong, 2006)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들이 경험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적인 비교는 힘든 것으로 여겨지므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이해에 중점을 두어서,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면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미래 자기효능감의 자원(Kendall & Bloomfield, 2005)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효능감은 성별이 남성인 군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숫자가 소수여서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자기효능감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Kim & Kim, 2007)와는 반대되는 결과로서, 간호사의 직업이 관례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어서 남자 간호사로서의 역할 제한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생기므로 남자 간호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약 12%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간호 전문직종에 남성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낮은 세계에 노출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이 남성 간호학생으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한 기회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준 요인은 없었다.

자기주도성은 평균평점 3.66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성 연구에서 Oh (2002)의 2.85점, Ko (2003)의 3.56점, Bae 등(2005)의 3.44점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주도성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성의 영향요인과(Bae et al., 2005; Ko, 2003; Oh, 2002), 자기주도성 증진의 변인은 다양하므로 선행연구와 단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실습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임상실습 교육시에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성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에 대한 애착>으로 평균평점 3.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Bae 등(2005)의 연구에서 학습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실습에 대한 애착의 의미는 학습자가 실습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Kim, 2007) 자기주도성에 근거한 임상실습은 학생이 스스로 실습의 목표를 설정해서 개인의 가치와 욕구, 선호에 따라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실습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Oh, 2002). 이에 본 연구 대상자들도 첫 임상실습이 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의 계기가 되어서 애착을 가지고 실습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

속적인 자기주도적 실습능력 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주도성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학년, 성적수준, 학교생활만족도, 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Ko (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자기주도성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해서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성에 차이를 준 요인은 없었으나, 사회심리적 변인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Ko, 2003; Oh, 2002) 임상실습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내외적인 지지체계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에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의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생은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자기주도적인 전략은 학생의 실습목적에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Vall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실습목적에 따른 자기주도성 보다는 실습강점에 따른 자기주도성과 실습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단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기존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강점을 통해서 자기주도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평균평점은 3.44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가 없어서 단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본 연구자의 연대별 조사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2006년에 첫 조사한 시점에서의 3.51점 보다는 만족도가 낮았고(Kim, 2006) Baek 등(2007)의 문제중심 학습방법을 적용한 임상실습교육의 만족도 연구에서의 3.34점 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인간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험에 대한 지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Lindset, Henly, & Tyree, 1997) 개인별로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며 임상실습의 교육방법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실습에 임하도록 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존중해서 만족도가 증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 <실습지도> 영역의 평균평점은 3.56점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지도교수요원 부족으로 인한 질적인 실습교육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다른 연구결과에 견주어보면(Je, 1999), 본 대학에서는 실습전임교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습전임교수의 실무와 연계된 이론적 지식구축 함양의 집중적인 지도와 외래교수로 위촉된 수간호사의 실질적인 지도에 만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습평가> 영역은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ek 등(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본 대학에서는 실습지침서에 평가기준을 세분화해서 미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의 점수가 곧 취업과

연계된다는 불안감 및 개인별 실습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평가점수를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불만족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임상실습교육방법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 별 실습평가 점수를 공개해서 개인의 발전에 대한 동기유발의 자극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실습교육과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하고 비용효율적인 평가도구가 있어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임상실습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는 군에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공 선택은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하고 긍정적인 전문직 태도를 형성해서 간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장소가 외과계인 군에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통해서 간호학생들은 본인의 수행능력을 입증하고 수기술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데(Valle et al., 2003), 본 연구대상자들은 역동적인 외과계의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임상실습에서의 간호수행을 통한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O'Kell, 1988).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간호학생은 임상실무에서 직접적인 대상자와의 접촉으로 간호에 대한 소명 의식의 계기가 되어서 자기지각을 통한 자기주도성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에 의한 실습 목표 달성의 원동력이 증진되어서 임상실습에 만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자기주도성은 실습에 대한 애착 영역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지도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성별이 남성인 군인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자기주도성은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관련 특성과는 차이가 없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는 군, 임상실습 장소가 외과계 군인 간호학생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교육의 질에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첫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학생에게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임상실습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임상경험을 통해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추후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될 수 있는 교육개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 동안 경남소재 1개 3년제 대학 간호과 2학년 재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의 도구를 기초로 Hong (1995)이 수정한 도구, 자기주도성은 Guglielmino 등(1987)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기초로 Yoo (1997)가 수정한 도구, 임상실습 만족도는 Moon (1999)의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자기효능감은 평균 3.70점이었으며, 자기주도성은 평균 3.66점이었다. 자기주도성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실습에 대한 애착이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전에 대한 개방성은 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3.44점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실습지도가 3.56점, 실습평가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 자기효능감은 성별이 남성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82, p=.005$).
- 자기주도성은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관련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 임상실습 만족도는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는 군($F=3.86, p=.011$), 임상실습 장소가 외과계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73, p=.006$).
-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성($r=.755, p<.001$), 임상실습 만족도($r=.379, p<.001$)와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만족도($r=.412,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2학년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후의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성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

-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임상간호수기능력이 향상되는지 그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표본수를 늘리고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ek, K. S., Song, A. R., Kim, Y. H., & Kim, T. K. (2007).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level with PBL-based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the maternal-child clinical practice -.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3(2), 92-106.
- Bae, Y. S., Lee, S. H., Kim, M. H., & Sun, K. S. (2005). Effects of PBL (Problem-Bas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184-190.
- Bantell, M. D. (2005). *Clinical evaluation methods used by baccalaureate nursing educato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linical are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umbia, Columbia.
- Chenoweth, L. (1998). Facilit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thinking for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18(4), 281-292.
- Cho, K. C., Roh, Y. S., & Boo, E. H.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127-134.
- Guglielmino, P. J., Guglielmino, L. M., & Long, H. B. (1987).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6(3), 303-317.
- Han, S. J.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32-146.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e, M. S. (1999).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6(2), 331-346.
- Kang, Y. S., Cho, H., Roh, Y. S., Boo, E. H., & Ahn, K. H. (2006). The effects of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th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1), 13-20.
- Kendall, S., & Bloomfield, L. (2005).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2), 174-181.
- Kim, C. Y. (2005). An evaluation study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eceptors in an ordered elective clinic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2(2), 195-205.
- Kim, K. H., & Kim, G. D.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229-236.
- Kim, S. H. (2007).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H. (2006). Autonomy,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r fundamentals nursing clinical practice in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1), 6-14.
- Ko, J. E. (2003).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1(2), 97-106.
- Levett-Jones, T. L. (2005). Self-directed lear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5(5), 363-368.
- Lindset, D. L., Henly, S. J., & Tyree, E. A. (1997). Outcomes in an academic nursing center: Client satisfaction with student services.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11(5), 30-38.
- Moon, Y. S. (1999). *A study on the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operating room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Nath, C., Schmidt, R., & Gunel, E. (2006).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vary most with educational rank and ag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70(8), 825-834.
- Oh, W. O. (2002).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684-693.
- O' Kell, S. P. (198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eaching preference of learner nurses in one health district. *Nurse Education Today*, 8, 197-204.
- Park, Y. T., & Hyun, J. S. (1997).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ong-A Educational Review*, 23, 95-11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levin, O. D., & Lavery, M. C. (1991). Self-directed learning and student supervision. *Nurse Education Today*, 11(5), 368-377.
- Twibell, R., Ryan, M., & Hermiz, M. (2005). Faculty perceptions of critical thinking in student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2), 71-79.
- Valle, A., Cabanach, R. G., Núñez, J. C., González-Pianda, J., Rodríguez, S., & Piñero, I. (2003). Multiple goals, motivation and academic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1), 71-87.

Yoo, K. O. (1997).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and it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Yoo, M. S., Son, Y. J., Yoo, I. Y., & Hong, S. K. (2006).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43-350.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Kim, Yeong Hie¹⁾

1) Full-tim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22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measures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sults:** The average self efficacy score was 3.70, self-directedness, 3.66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44. Self 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with men having higher scores ($t=-2.82, p=.00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otivation for nursing ($F=3.86, p=.011$), and location of clinical practice ($F=3.73, p=.006$). Self effic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self-directedness ($r=.755, p<.001$)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379, p<.001$). Self-directednes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412, p<.001$). **Conclusion:** After clinical practice,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were relative higher.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were affected b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Key words : Self Efficacy, Self, Directive, Satisfaction,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eong Hie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1142, Sangbongseong, Jinju-city, Gyeongnam 660-757, Korea

Tel: 82-55-740-1842 Fax: 82-55-743-3010 E-mail: global@postown.net